

문화재 관리 방식, 정부-지자체간 일원화 필요

남한산성 문화유산 관리 '부실' ②

소유자따라 '관리 주체' 달라 소홀 전문인력 부족, 인력 충원 관리해야 지속적인 점검 필요... 시민들 활용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등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반복해 드러나며 도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신문이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을 찾아 취재한 결과, 다수의 안내문에서 오타와 비문이 발견되고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등 관리 소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안내문에는 '현절사'가 '현절사'로 적히는 등 아예 잘못 표기된 것도 있었고, '지휘를 했단'이라 쓰여야 할 문장이 '지휘을'이라는 틀린 조사가 붙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부 글자가 떨어지거나 오염돼 알아볼 수 없는 등 세계유산의 안내문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도가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남한산성 내 여장(女牆·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이 상당수 훼손됐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장 주의 조치를 내렸음에도, 또 다른 부분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남한산성뿐 아니라 도내 여러 문화재를 둘러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꽂초들.

사진=강현수 기자

싼 관리 소홀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시흥 조남리지석묘의 안내판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건이 알려졌고, 이후에도 여러 국가도 지정 문화재가 관리 부실로 훼손되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재의 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는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문화재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 주체가 사찰이나 종중인 경우도 있고, 각 사군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즉,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문화재 보존에 대한 중요성 판단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

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문화재보호법과 도에 따르면 문화재 관리는 소유자인 사·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와 각지자체별 문화재 관리 방식이 일원화되지 않아 보존과 관련한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관련 학과 A 교수는 "(문화재 관리)를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문화재청에서 해 박자가 안 맞는 것 같다"며 "문화재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해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

리도 나온다.

현재 도는 '학예직 공무원'과 경기도 문화재 위원 등 전문 인력을 두고 문화재 훼손이나 문제 발생 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완전한 문화재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A 교수는 "(학예직 공무원들은) 보통 석사도 받기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수처럼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마다 2~3명으로 인력이 적은 데다 일이 많아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한산성 관리 주체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내 학예 연구사는 두 명뿐이다. 이들조차 도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이뤄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관리 부실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크로스체크(교차 확인)'를 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과거 남한산성의 관리 위원을 맡은 B 교수는 "(해당 문화재를) 전공한 인력을 충원해 공증을 받아야 하고, 신경 써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역사문화재연구원 김기룡 조사연구실장은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분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강현수 기자



이재준 시장이 팻말을 들고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국비지원은 민생경제의 희망

이재준 시장,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 참여... 김경일 파주시장 지목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지역화폐 정책 국비지원은 민생경제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명을 받은 이재준 시장은 22일 집무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챌린지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메시지를 적은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과 메시지를 개인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때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유지하려 하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경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지역화폐 정책이 지속될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지목했다. 김세영 기자

내일 청소년 에너지 공감캠프 개최

수원시 에너지센터는 24일 오후 1시 아주대 학교 가운마당에서 '2022 지속가능발전 청소년 에너지 공감캠프'를 연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미래에너지 과학 기초강연'으로 시작해 청소년 댄스 동아리 공연, 개막식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가운마당에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성과 건강권' 캠페인도 진행한다. 추천, 플로요이드 사진 촬영, SNS 업로드 이벤트도 마련된다. 김세영 기자

"4대 기초노동절서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영세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권익 침해 예방에 나섰다.

경기지청은 지난 21일 노무관리 취약,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3차 4대 기초노동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 노무 지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금식 경기지청장과 경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화성시 팔달면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170곳을 방문해 경영상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4대 기초노동절서 준수를 당부했다.

경기지청은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4차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 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절서 준수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경기도교육청 슬림화'... 학교 업무 부담 증가 우려

교사노조 "현장 의견 반영 안돼" 도교육청 "현장 의견 경청할 것"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슬림화' 조직개편이 학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22일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도교육청 슬림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면 학교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회 제363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슬림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해진 도교육청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임태희(사진 왼쪽)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박진석 기자

이어 화성·오산,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각 지역으로 분리·신설하는 '1사·군 1교육지원청' 추진의사도 내비쳤다.

교사노조는 도교육청 슬림화 조직개편에 찬성하지만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인사·재정·학교 회계 등 본청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 논의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결국 해당 업무들이 학교로 하달됐다는 것이 교사노조의 주장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업무들은 사실상 학교가 떠맡게 돼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며 "도교육청이 현장 논의 절차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교육청 슬림화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슬림화 조직개편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만큼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현장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경기신문! 이제 가판대에서 만나보세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지의 버스정류장, 세븐일레븐, GS25, CU 등 400여곳 가판대에서 판매중

